

내년 SOC예산 감축 건설업계 실업한파 우려

도내 건설업계가 실업한파를 우려하고 있다. 정부의 내년 사회간접자본(SOC)예산 감축 때문이다.

16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지역 SOC예산 변화의 결정 요인과 정책적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정부 SOC예산 삭감 시 도내 예산액을 추산한 결과 2,100억원에 불과했다. 울산(1,100억원), 제주(600억원)와 함께 최하위권이다. 올 8월 정부는 SOC예산을 올해보다 20% 삭감한 17조7,000억원으로 발표했다.

이에 도내 건설업계는 지역경제를 좌우하는 건설산업의 위기로 실업률

도 배정추산액 2,100억 최하위권 고용 감소·내수불황 불가피 예고

증가와 내수경기 불황이 닥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겨울시즌 건설업 일거리 감소세와 올림피아 이후 신규사업 위축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대한건설협회 도회에 따르면 올 10월 도내 종합건설업체의 총 수주금액은 756억9,955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3%(903억2,351만원) 하락했다.

건설업계는 정부의 예산 삭감기조

에 따라 기존 시설 활용도를 높이는 (리모델링, 재건축) 등 '계속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건설협회 도회 관계자는 "SOC예산이 감축되면 일자리 가뭄이 발생, 향후 춘천~속초 고속화철도, 제2경춘국도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된다"며 "건설산업의 부흥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대한건설협회를 비롯한 9개 건설 관련 기관은 SOC예산 증액 요구 연명호소문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재규기자

강원 인프라시설 노후화 심각

일반도로 노후도 67.3% '전국 최고'
상수도 누수율 20%, 태백 가장 심해
하수관로는 27%가 20년 넘어

강원지역의 인프라시설 노후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와 상·하수도 시설이 많이 낡아 개선이 시급하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도내 일반도로의 총 연장 대비 노후도는 67.3%다. 전국 전체 도로의 노후도 수준인 60.1%를 뛰어넘는다. 지역별로 보면 도의 도로 노후도가 가장 높다. 경북(65.6%)과 충북(63.7%)의 도로 노후도가 뒤를 이었다.

도로 노후화의 기준은 아스팔트 도로는 10년, 콘크리트 도로는 20년이다.

도내 도로 연장 1946km 가운데 11년에서 20년 된 도로는 740km다. 20년이 넘은 도로는 569km다.

상수관로와 하수관로의 노후도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도내 상수도 누수율은 2015년 기준으로 20%다. 전국 평균 누수율 10.9%보다 2배가량 높다.

도보다 상수도 누수율이 심한 지역은 제주(41.7%)와 전남(27%), 경북(24.3%),

전국 시도별 상수도 누수율 현황 단위:% (2015년)



전북(23.2%)뿐이다. 서울(2.4%)과 부산(4.4%) 등 주요 도시의 누수율은 매우 낮다.

특히 태백시의 상수도 누수율은 57.7%로 절반이 넘는다. 화천군(40.7%)과 양구군(32.5%), 홍천군(31.9%)의 상수도 누수율도 심각한 수준이다.

도내 상수도 누수율이 높은 이유는 오래된 상수관로가 많기 때문이다. 도의 상수관로 연장은 총 1만183.9km다. 이 중 사용연수 20년을 넘긴 관로는 33.2%인 3363.1km다.

동해시(56.9%)와 속초시(53%)의 상수도 노후도가 절반이 넘는다. 고성군의

상수관로 노후도도 40.7%다.

도내 하수관로의 노후화 수준도 높다. 도내 하수관로 7723.9km 가운데 사용연수 20년 이상인 관로는 27.06%(2089.7km)다. 도내 시·군별 노후관로 비율을 보면 정선군(69.03%)과 태백시(55.54%)가 절반이 넘었다. 춘천시(46.19%)와 철원군(39.62%)의 관로 노후도도 높았다.

도 건설업계 관계자는 “도내 인프라 시설의 노후도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노후 인프라 개선이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